



2006년 세계경제 전망 및 통상환경

이준규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장 (junkyu@kiep.go.kr, Tel; 3460-1128)

나수엽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syna@kiep.go.kr, Tel; 3460-1072)

주요 내용

- ▣ 세계경제는 향후 2006년 최소 2~3분기 정도까지는 지속적으로 장기추세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 미국경제는 2006년 평균 3.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여 세계경제 성장엔진의 역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경제는 고도성장 위주의 정부정책 기조에 힘입어 2005년 9.3%, 2006년 8.0% 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일본경제는 내수 주도의 성장세에 의해 2005년 2%, 2006년에는 1~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EU 경제는 2005년에 1.4~1.5% 성장으로 2004년에 비해 다소 위축되고 2006년에는 다시 1.9~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달러화는 2005년 말까지 강세를 지속하고 2006년 상반기 이후에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됨.
- ▣ 유가는 기본적으로 2006년에도 고유가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가수준은 여러 주요 변수에 의해 결정될 것임.
- ▣ 최근 FTA는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정치·안보 및 자원확보의 목적 등 여러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는바, 당분간 FTA 체결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1. 세계경제 성장 전망

가. 2006년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는 고유가, 테러, 자연재해 등 외부의 충격에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바, 향후 최소 2006년 2~3분기 정도 지속적으로 장기추세선 이상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세계경제는 장기추세선인 3% 성장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2/4분기 이후에는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이 소비, 투자, 실질 GDP 성장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됨.

표 1. 세계경제 전망(2005~2006년)

(단위: %)

	Global Insight		IMF		World Bank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세계경제성장률	3.5	3.4	4.3	4.3	3.2	3.2
미국	3.7	3.4	3.5	3.3	3.5	3.5
일본	2.4	1.9	2.0	2.0	2.3	1.8
EU 지역	1.4	1.8	1.2	1.8	1.1	1.4

자료: Global Insight(2005. 11); IMF(2005. 9), World Economic Outlook; World Bank(2005. 11), 2006 Global Economic Prospects.

나. 2006년 세계경제의 주요 위험요인

- 조류독감 확산 위험
 - World Bank는 조류독감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에게까지 전염이 확산될 경우 8천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였음. 조류독감은 선진국보다 개도국에 더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고, 주요 피해산업은 농축산업, 여행 및 관광 산업 등임.
-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위험

- 2006년 미국의 무역 적자규모는¹⁾ 8,3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2006년 미국의 경상 적자규모는 GDP 대비 6.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 제조업의 높은 생산성,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 외국인의 지속적인 달러화 자산 매입 등을 고려하더라도 글로벌 불균형의 지속에는 한계가 있어, 미국의 경상 적자 심화가 세계경제에 불안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

■ 세계 주택시장의 경착륙 위험

- 2006년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으로 인한 모기지금리 상승, 고유가, 버블붕괴 심리 확산으로 인해 세계 주요국의 주택시장이 조정 또는 일부 국가에서 경착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2005년 현재 유럽은 영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조정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의 주택가격 조정이 고유가와 동시에 미국의 소비를 압박하는 경우 세계경제에 어려움을 더할 가능성이 있으나, 미국 주택시장의 경착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 고유가 지속 위험

- 2006년 국제유가에 영향을 미칠 5대 주요 변수로는 미국 경제성장세 여부, 중국과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세 여부, 이란의 정세 변화, 이라크 내전양상, 자연재해로 인한 정유시설 파괴 등이 있음.

■ 세계적 동반금리 상승 위험

- 2006년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주목하는 거시변수 중 하나는 물가지수가 될 것임. 인플레이션 압력 발생에 대한 우려가 2005년 말과 2006년 상반기 중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과 함께 유럽 등 기타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킬 것임.

- 2006년에는 세계적인 동반금리 상승의 가능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1) 2005년 미국의 무역적자는 7,7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2005년 경상적자는 GDP 대비 6.5%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 테러 및 자연재해의 위험

- 테러 방어, 자연재해에 대한 국제공조의 확대 및 세계경제의 유연성 증가로 이들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은 2005년에 비해 낮아질 전망이다.

2. 주요국의 경제 전망

가. 미국

- 2005년 하반기 동향

- 미국의 실질경제성장률은 2003년 2/4분기 이후 10분기 연속 3~4.3%를 기록하여 최근 2년간 고유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초과 달성함.

- 2006년 미국경제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주요 이슈로는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금리 상승 △주택시장 버블 붕괴우려 △쌍둥이 적자의 지속 등임.

- 2006년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

- 미국경제는 2006년 평균 3.3%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어 세계경제의 성장엔진 역할을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임.

나. 중국

- 중국은 2005년 1/4분기 9.4%, 2/4분기 9.5%, 3/4분기 9.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2003년 이래 9% 이상의 고도성장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중국경제의 주요 이슈는 △무역수지 흑자의 급증 △수출과 투자 의존형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 △위안화 평가절상 등임.

- 중국은 고도성장 위주의 정부정책 기조, 수출증가세와 무역 흑자의 발생 지속 등의 요인에 의해 2005년 9.3%, 2006년 8.0%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표 2. 향후 4년간 성장을 및 위안화 전망

	2005	2006년	2007년	2008년
실질 GDP 성장률, %	9.3	8.0	7.5	7.0
위안화·달러 환율	8.1	7.9	7.6	7.6

자료: EIU(2005. 11)

- 위안화 환율은 보다 실질적인 추가절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5% 내외)으로 예상된다.

다. 일본

- 향후 일본경제는 석유가격 상승이나 미국, 중국 등 해외경제의 불안요인들이 있으나 2005년과 2006년에는 개인소비와 설비투자를 주축으로 하는 내수 주도의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큼.

- 2005년 일본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2%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006년에는 1~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라. 유럽

- 2005년 상반기에 전기대비 0.3~0.4% 성장했던 EU 경제는 수출확대에 힘입어 2005년 3/4 분기에 0.6% 성장함으로써 경기부진에서 벗어나기 시작함.

- 2006년 주요 이슈는 △고유가 영향 △금리인상 가능성 △긴축재정 압박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 경제 개혁정책 불확실성 △이민자 이슈 △EU헌법 부결로 인한 통합의 어려움 등임.

- 2006년 EU 경제는 200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반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러 정치·경제적 불안요소는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EU 경제는 2005년에 1.4~1.5% 성장으로 2004년에 비해 다소 위축되고 2006년에는 다시 1.9~2.0%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3. 국제환율 전망

가. 2005~06년 국제금융시장의 이슈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지속과 금리정책 방향

- 미국의 금리인상 기조 유지에 따른 주요국의 금리 차이 확대로 각국의 정책금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경제여건 및 인플레이션 압력 등을 고려할 때 2006년 상반기에 유럽 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BOJ)의 금리정책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미국 및 세계 경제의 급격한 조정과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글로벌 불균형 해소방법은 환율조정, 무역 흑자국 총수요 증가, 미국의 가계 및 정부의 저축 증가 노력 등이지만 세가지 방법이 다 현실적 한계에 봉착해 있음.

나. 2005~06년 환율 전망

표 3. 주요국 환율 전망

		05/12/23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유로화 (달러/유로)	Global Insight	1,1869	1,23	1,26	-	-
	투자은행		1,1907	1,2375	1,2680	1,2736
엔화 (엔/달러)	Global Insight	116.26	112.91	109.74	-	-
	투자은행		116.36	113.17	111.40	106.21
원화 (원/달러)	KIEP	1013.60	1014.33		1,000.32	

주: 투자은행은 14개 국제투자은행의 평균 전망치이고, 2005년 12월 23일 종가 기준 명목 환율 제시.

자료: Global Insight(2005. 11), Online Database; 국제금융센터, 2005년 12월 6일 보도자료.

■ 달러화는 금리 인상 지속으로 2005년 말까지는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기준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인 2006년 상반기 이후에 약세로 전환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미국의 금리인상 지속에 한계가 있을 것이며 경기회복이 나타나는 2006년 상반기 이후 ECB와 BOJ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주요국간 금리격차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4. 2006년 유가 전망

- 타이트한 원유수급구조와 정제시설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2006년에도 기본적으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수준은 △2006년 미국경기 △중국의 연료세 도입 추진 △이란 핵문제 △이라크 정세변화 △허리케인 피해영향 지속 여부 등 5대 변수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임.

표 4. 2006년 시나리오별 유가 전망

시나리오	내용	두바이 유가	WTI 유가
고유가 케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성장률 3.3% 이상 •이란 핵문제와 석유 연계 •허리케인 피해 발생과 비축유 방출 	62±5달러	75±5달러
기준 케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성장률 3.0~3.2% •중동정세 불안 현수준 유지 •심각한 허리케인 피해 미발생 	50±3달러	60±3달러
저유가 케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성장률 2.5~3.0% •중국 연료세 도입 •산유국의 테러 및 파업 미발생 	43±2달러	50±2달러

5. 2006년 주요 통상환경

가. WTO/DDA 동향 및 2006년 전망

- “분야별 완벽한 세부원칙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간단계”가 목표인 제 6차 WTO 각료회의(2005년 12월 13~18일)에서 최빈개도국 지원,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시한 등 핵심의제가 합의되면서 향후 협상의 진전을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음.

- WTO 회원국은 2006년 4월 말까지 세부원칙을 타결하고 7월 말까지 국별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2006년 상반기 중으로 세부원칙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다면 협상 여하에 따라 2006년 말 또는 2007년 상반기까지 DDA 협상 전체가 타결될 수 있고 회원국별 이행 검증과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2008년 중으로 DDA 협상 결과가 발효될 수 있을 것임.

나. 자유무역협정의 추진 현황 및 전망

- 2005년에는 WTO의 DDA 협상이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가운데 미국 및 중국 등 주요 국가를 비롯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FTA를 추진함.
- WTO에 따르면 2005년 7월까지 WTO에 통보되고 발효 중인 지역무역협정은 총 180건으로, 이 가운데 총 18건의 FTA가 2005년 중에 추가됨.
- 최근 FTA는 경제적인 목적 이외에도 정치·안보 및 자원 확보의 목적 등 여러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는바, 당분간 FTA 체결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다. ASEAN+3 동향 및 전망

- 역내 국가들의 지속적인 성장 기조하에 ASEAN+3 역내의 교역 및 투자 관계는 보다 활성화되고,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면서 기능적 통합에 상응하는 제도적 통합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
- ASEAN+3 역내 국가가 향후 일정 기간 고도성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기존의 기능적 통합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 상호간의 경제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역내 경제교류의 활성화 및 다각화에 대비하여 동아시아지역의 상호 의존성과 분업관계를 중점으로 하는 새로운 대응전략의 마련이 필요하고, 역내 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라. 동북아 경제협력 동향 및 전망

- 북한 핵문제 관련 6자회담이 재개됨에 따라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증대됨.

- 6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향후 에너지 개발 관련 협력사업의 진전이 기대됨.

- 동북아 FTA와 같은 제도적 경제통합을 단기적 시일내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역내 에너지, 철도, 환경 등의 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경제협력 협의기구로서 「동북아 경제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